

本校 新入生들의 生活環境과 價値觀의 變化에 관한 研究

— 1982~1991학년도까지 10년간 —

姜 東 植*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調査方法 및 內容
- III. 家庭環境과 價値觀에 관한 理論的 背景
- IV. 結果 및 分析
- V. 要約 및 結論

I. 問題의 提起

본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본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82학년도(종합대학교로 승격)부터 매년 特性을 조사, 분석 학술지인 "학생생활 연구"지에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目的은 대학교육의 質的 향상을 위해 學習者의 基本特性을 파악하여 效율적인 대학교육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신입생들의 제반 特性이 중요시 되어왔던 것은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이 재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은 과거 어느때 보다 급격한 환경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수동적이었던 과거의 생활과는 달리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이 부가된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0년대의 우리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매우 혼란된 시기였다.

* 학생생활연구소 조교수(조사연구부장, 行政學)

1) '82학년도 이전에도 신입생들에 대한 特性을 조사 발표했었다. 71학년도(제1집), 72학년도(제2집), 73학년도(제3집), 76학년도(제4집)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다양한 사회계층과 조직으로 하여금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상이한 요구와 평가를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와 평가는 대학구성원들에게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케 하였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모든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겠으나 특히 대학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지난 '82학년도부터 '91학년도까지의 변화는 본 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 점수와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으며, 졸업정원제, 전시험제, 선지원 후시험제 실시 등으로 심정적 고통이 가장 컸던 시기였다.

신입생들의 초기 대학생활에서의 좌절 및 적응상의 실패는 4년동안의 대학생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4년의 대학생활을 비효율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초기 대학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입생들의 제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신입생들의 환경적, 심리적 특성을 時系列的으로 조사, 분석하여 학생뿐 아니라 학교당국도 학생들의 교육용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II. 調査方法 및 內容

1. 調査대상 및 分析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1982학년도부터 1991학년도까지의 10년간의 신입생 18,533명(신입생 정원) 중 본 연구소에서 실시한 "신입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14,620명(10년간 평균 79%의 응답율을 보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²⁾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비율은 (별표~1)과 같다.

2) 신입생이 증가한 것은 '81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 졸업정원제에 따른 입학정원의 30%까지를 증원 모집했기 때문이다.

(별표~1) 입학정원과 응답자 분포

연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계
입학정원	1,846	1,885	1,963	1,834	1,825	1,820	1,800	1,840	1,840	1,880	18,533
응답자	1,405	1,702	1,802	1,664	1,650	1,591	1,507	1,369	1,652	1,683	14,620
응답자(%)	76.1	90	92	90	90	87	84	74	90	90	78.8

분석된 자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설문조사된 것으로 매년 발간되는 "학생생활 연구"에 발표된 사항이다. 사용된 설문내용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해마다 몇몇 문항이 수정 보완되거나 탈락되어 추세분석이 가능한 문항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그 변화추세를 비교 분석했다.

2.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크게 (1) 일반적 특성, (2) 가정환경, (3) 학과선택, (4) 대학진학 및 진로, (5) 가치관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 ① 신입생의 性 구성
- ② 신입생의 연령분포
- ③ 대학입학을 위한 재수여부

2) 가정환경

- ① 가족의 거주지
- ② 보호자의 직업
- ③ 보호자의 학력
- ④ 가정의 월 수입
- ⑤ 가정의 경제수준
- ⑥ 학비조달 방법

3) 학과선택

- ① 학과선택의 고려요인
- ②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4) 대학진학 및 진로

- ① 지원동기
- ②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
- ③ 본교에 입학한 긍지심
- ④ 부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
- ⑤ 직업선택의 기준
- ⑥ 대학졸업후의 계획

5) 가치관

- ①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
- ② 개인적인 문제의 의논대상
- ③ 재학기간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 ④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 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 ⑥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3. 결과 제시

자료의 제시는 편의상 총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으로 변화의 특성을 약술했기 때문에 총합의 %는 100%를 다소 增·減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2학년도의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처리했다.

Ⅲ. 가정환경과 가치관의 이론적 배경

1. 가정 환경

가정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두고, 또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인격 형성의 가장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의 환경이기도 하다.

학생의 인격형성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가정 환경은 바로 교육환경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인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교육의 교사가 되는 학부모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윤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정교

육, 중국의 孟母三遷之敎, 미국의 링컨과 루주벨트 대통령 부모의 훌륭한 인격과 행동을 통한 산 교육 등 부모의 심오하고 무한한 사랑은 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볼 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가정교육의 근본을 이루는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부모의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 등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부모의 훌륭한 인격의 생활화는 자녀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주는 산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인격교육은 한마디로 건전한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형성의 요소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숭고한 신념, 이념, 가치관, 인생관, 선한 양심, 참된 자아실현, 도덕심(덕성), 윤리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조화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이란 인간의 지적, 정적, 의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면이 골고루 조화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말한다 할 것이다.³⁾

2. 가치관

대학생들의 가치의식 성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치의식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치의식의 개념 정의에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범모에 의하면 가치관은 「개인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사물과 상황을 보고 느끼는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며, 개인의 만족과 평가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⁴⁾

또한 황정규는 가치관을 「선택상황에 대한 일반화되고 체계화된 평가적 기준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전달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고 하였다.⁵⁾

박용현은 가치관을 「행동의 선택이나 판단과 같은 정신작용을 포함하는 보다 중핵적이고 고차적인 특성의 것으로 보고 사회적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해 주는 동기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⁶⁾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각기 다른 개념정의는 다양한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의식구조 중에서 주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성이며,

둘째, 가치관은 판단의 근거 및 행동의 선택을 내포하는 고도의 심리적 과정이며,

3) 鄭元植, 情意의 敎育, 培英社, 1969, p.168.

4)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1972, pp.17~18.

5) 황정규, 한국학생의 의식구조,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1979, p.9.

6) 박용현,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대학생의 가치의식, 서울대 출판부, 1986, pp.89~91.

세계, 가치관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영향속에서 내면화된 일괄성있는 체계로 보고 있다. 상술한 가치의식 또는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다.

황정규는⁷⁾ 이들 연구들을 접근방법에 따라 유형론적 접근과 특성론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유형론은 인간의 가치관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방법으로 Allport와 Vernon은 Spranger가 분류한 6개의 가치영역에 따라 이론적 경제적, 심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였으며, Kluckohn과 Stodbeck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 본성관, 인간대 자연관, 활동관, 대외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문화권을 달리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 특성론적 접근에는 질문지 형식이나 Likert 척도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되며, 의미분석을 통해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을 평가, 능력, 활동차원으로 나누어서 본 OSgood의 연구⁸⁾와 배척하는 것으로부터 선호하는 순으로 그 정도를 유사동간법으로 척도화시켜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 Thurston 등의 연구⁹⁾가 있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이 특성론적, 유형론적 접근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태길¹¹⁾, 홍승직¹²⁾, 황응연 등¹³⁾ 등이 있다.

근래에는 가치관을 학생들의 다양한 의식구조속에 포함시키고 중·고·대학생인 청소년기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IV. 신입생들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분석

1. 일반적 특성

1) 신입생의 성 구성

전체 신입생들의 男·女분포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연도별로 분석한 것은 (표-1)로 제시했다.

7) 황정규, 前掲書, pp. 9~10

8) OSgood, C.E. et al,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 University of Illonosi press, 1957.

9) Thustone, L.L. et al, The measurement of Attitud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10) 허남순, 한림대학교 신입생의 가치의식 성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0, p. 29.

11) 김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일조각, 1967.

12) 홍승직,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아세아연구 11권,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63.

13) 황응연 등,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4.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의 비율은 '82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 34~38%(평균)를 점유하던 것이, '88학년도와 '89학년도에는 55~53%(평균)로 남학생을 훨씬 증가했으며, '90학년도와 '91학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49%(평균)선을 보였지만, 매년 여학생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신입생의 성 구성

(숫자 %)

연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문대학	33	67	23	77	20	80	19	81	18	82	17	83	15	85	9	91	14	86	18	82	19	81	
법정대학	(87학년도까지 사회과학대학) →											62	38	45	55	64	36	57	43	57	43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79	21	69	31	76	24	72	28	72	28	73	27	42	58	36	64	45	55	46	54	45	55	73 27
사범대학	43	57	44	56	39	61	33	67	34	66	34	66	25	75	25	75	21	79	17	83	32	68	
농과대학	77	23	94	6	85	15	92	8	80	20	86	14	78	24	73	27	76	24	73	27	81	19	
해양대학	85	15	95	5	87	13	97	3	95	5	95	5	84	16	89	11	86	14	85	15	90	10	
자연대학	(85학년도에 이공대학 신설) →						(89학년부터 자연 공과대 분리) →						33	67	38	62	35	65	35	65	※이공대학		
공과대학							82	18	79	21	67	33	66	34	68	32	66	34	68	32	67	33	73 27
계	63	37	65	35	61	39	63	37	66	34	62	38	45	55	47	53	51	49	51	49			

- ※ 야간강좌부 학생수는 사회과학대학 학생수에 포함했음.
- ※ 사회과학대학은 '88학년도부터 법정, 경상대학으로 분리됐음.
- ※ 이공대학은 '85학년도에 신설됐으며, '89학년도부터 자연, 공과대학으로 분리됨.
- ※ 숫자는 반올림했기 때문에 100%를 약간 증·감할 수 있음.

2) 신입생의 연령분포

신입생들의 입학년도별 연령분포는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인 18세를 기준으로 하여 18세 이하와 19세 이상인 신입생들의 비율을 보면, 18세 이하인 신입생의 비율이 '83, '84, '85, '86학년도까지 낮아졌다가, '87, '88, '89학년도에 높아졌으며, 19세 이상인 신입생의 비율은 반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88학년도부터 선지원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2) 신입생의 연령분포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17세 미만	7.8	0.8	8.1	11.1	7.8	7.2	7.2	7.6	4.3	4.8
18세	59.9	55.4	51.4	51.0	54.3	60.2	61.4	72.3	63.4	62.3
19세	20.0	26.2	24.6	25.5	24.7	21.1	23.8	17.2	22.5	21.9
20세	6.3	7.8	7.4	5.5	6.1	5.2	4.6	1.8	6.5	6.8
21세	1.6	1.3	2.4	1.1	1.2	1.2	0.7	0.3	1.5	1.8
22세	0.8	1.4	1.3	0.8	1.3	0.5	0.5	0.3	0.4	0.7
23세 이상	3.6	6.2	4.8	4.5	3.7	7.5	1.7	0.3	1.5	1.6
계	100	99.1	100	99.5	99.1	97.9	99.9	99.8	100.1	99.9

3)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여부

신입생들의 연도별 재수경험 분포가 (표-3)에 제시되고 있다.

(표-3)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 여부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안 했다	84	79	79	81	79	84	86	85	82	79	81.8
1년이상재수	16	21	21	18	21	15	13	15	18	20	17.8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82학년도에 16%로 떨어졌던 재수생들이 '83, '84, '85, '86학년도에는 20% 선으로 증가했다가 '87, '88, '89학년도에는 다시 3~7% 떨어졌고, '90, '91학년도에는 다시 20%선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원인은 대학입시제도가 바뀐 것이 원인인데, 즉 선시험 후지원의 대입제도가 '87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시험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재수생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가정환경

1) 가족의 거주지

가족의 거주지는 신입생들의 생활근거지로 볼 수 있다.
 신입생들의 가족의 거주지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 가족의 거주지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합계
제 주 시	44	42	39	38	43	43	44	45	48	46	42.8
서귀포시	16	15	16	16	15	18	18	16	14	14	16.0
남제주군	19	18	16	16	16	16	16	16	16	16	16.0
북제주군	18	20	24	23	23	19	14	35	19	18	21.6
서 울	0.3	0.2	0.4	0.5	1.1	0.8	0.5	1.0	1.2	1.5	
인천·경기	0.2	0.2	0.3	0.4	0.2	0.2	0.2	0.2	0.4	0.4	
강 원	0.3	0.2	0.1	0.1	0.1	0.1	0.1	0.0	0.1	0.1	
충 북	0.1	0.2	0.1	0.1	0.1	0.1	0.3	0.1	0.1	0.2	
대전·충남	0.2	0.2	0.3	0.3	0.3	0.5	0.1	0.2	0.1	0.1	
전 북	0.2	0.2	0.8	0.4	0.0	0.1	0.5	0.1	0.1	0.2	
광주·전남	1.4	1.3	1.5	1.0	1.0	0.4	0.8	1.2	1.0	1.0	
대구·경북	0.4	0.1	0.8	0.4	0.1	0.4	0.2	0.1	0.3	0.4	
부산·경남	0.3	0.5	0.8	0.9	0.9	0.5	0.7	0.5	0.9	1.5	

※ '91학년도 설문지에는 「가족의 거주지」대신 「신입생의 성장지」로 문항이 바뀌었음.

신입생들의 가족의 거주지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타도학생도 매년 3~4%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거주지와 더불어 생각케하는 것은 '70년대만 해도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신입생들이나 재학생 대부분이 제주시에 거주지를 뒀지만, '80년대 이후 각종 도로개통과 포장, 교통수단이 증가로 제주도 전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났기 때문에 도전역에서 통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보호자의 직업

연도별 보호자의 직업분포는 (표-5)와 같다.

(표-5) 보호자의 직업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90*	'91
농업	56	53	49	53	43	44
수산업	1.1	1.5	1.7	2.1 [△]	1.9	1.3
공업		1.1	0.4	0.5	1.1	0.9
건설업	0.8	0.8	1.0	0.4	2.6	3.9
서비스업			1.8	0.1	6.1	7.0
회사원	3.4	3.9	3.1	4.2	6.9	7.0
공무원	14.8*	6.9	6.5	7.2	9.0	7.7
교육자		4.5	4.5	6.6	4.4	4.7
정치가					0.1	0.1
법조인		0.0				0.0
언론분야		0.2			0.1	0.1
종교인		0.1			0.3	0.3
군인					0.3	0.3
상업		13.4	12.7	17.7	13.7	16.0
문학·예술인					0.0	0.0
연구원					0.5	0.1
의사			0.1	0.1	0.3	0.2
무직	4.9	5.8		4.0	1.4	1.9
기타	2.8	7.6	19.1	3.2	8.5	5.2

* '82학년도에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합쳐 공무원으로 문항이 설정돼 있어 공무원으로 보았음.

* 보호자의 직업내용중 공란은 문항에 없는 것임.

△ '85학년도에는 보호자의 직업중 「수산업」을 「어업」으로 문항이 바뀌어 있어 「어업」을 「수산업」에 포함했음.

* '86, '87, '88, '89학년도 설문문항에 보호자의 직업항목이 빠져 있음.

* '90학년도 신입생의 85.7%가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답하여 '90학년도 보호자의 직업을 「父·母」로 구분된 것을父의 직업에 기준하였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자의 직업은 제주도의 지역 여건상 농업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80년대 중반기까지만 해도 미묘하던 서서비스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학력은 학생들의 사회생활이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호자의 학력분포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6) 보호자의 학력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무 학		4.6	3.5	6.4	5.0	3.1	2.5	2.9	2.8	2.2
한문·수학		16.8	2.4	5.7	2.4	0.8	1.1	0.7	0.7	0.5
국 졸		※	28.7	24.0	25.6	24.5	23.6	16.7	20.7	19.1
중 졸		29.8	26.1	23.0	25.0	23.1	25.4	22.3	22.7	24.2
고 졸		33.6	27.4	30.0	31.5	35.0	35.3	37.4	37.5	36.2
대졸 이상		12.1	10.5	11.0	10.4	13.0	13.0	20.0	15.7	17.8

※ '82학년도에는 설문문항이 없었음.

※ '83학년도에는 국졸대신 한문, 수학능력 문항에 포함.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학년도를 기준으로 '83학년도부터 '86학년도까지는 학부모들의 국졸이하의 학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87학년도부터는 국졸 이하의 학력이 감소하고 고졸이상의 학부모가 평균 36.2%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들도 고학력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86학년도까지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학부모가 10% 선이던 것이 '86학년도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줬다.

4) 가정의 월수입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 우선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월수입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가정의 경제수준, 학비조달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의 월수입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7)과 같다.

(표-7) 가정의 월수입

(숫자 %)

연도 문항	'84	'85	'86	'87	'88	'89	'90	'91
20만원 이하	27.7	26.6	23.0	23.7	17.7	11.4	6.0	3.9
20~29만원	26.1	27.6	21.3	19.0	18.3	11.1	7.4	3.8
30~39만원	21.3	21.0	24.5	20.6	23.9	21.6	14.2	10.1
40~49만원	9.3	10.5	13.3	12.3	15.0	17.3	20.4	13.0
50~59만원	5.5	5.4	7.0	10.0	13.3	13.7	21.1	17.4
60~69만원	3.5	1.5	2.8	2.5	5.2	6.8	10.9	14.2
70만원 이상	3.5	2.8	0.2	3.7	6.7	11.9	20.0	37.5

※ '82, '83학년도에는 설문문항이 없음.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이 최저 생활비라 할 수 있는 월 30만원 이하의 수입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그런데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월 40만원~50만원과, 중류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60만원 이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에는 없지만 월 1백만원 이상 수입가정도 '90학년도 5.9%에서 '91학년도에는 12.3%로 크게 증가해 가정의 월 수입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5) 가정의 경제수준

앞에서 가정의 월수입을 살펴봤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주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8) 가정의 경제수준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상	1.3		4.7	4.7	4.0	2.0	4.4	5.8	4.4	0.4
중 상	9.0		11.8	44.0	47.0	33.0	10.6	14.2	14.4	35.5
중	58.0		58.0	36.0	35.0	40.5	50.4	48.9	54.4	※
중 하	21.0		21.4	10.3	11.2	17.0	22.6	18.0	18.5	57.5
하	11.0		4.0	5.1	3.0	5.3	3.6	11.7	8.2	7.0

※ '83학년도에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문항에서 제외됐음.

※ 문항 없음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 "중"을 중심으로 볼 경우 "중상"보다, "중하"에 응답한 학생이 많아 우리사회가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현상을 엿볼 수 있다.

6) 학비조달 방법

앞에서 월수입은 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신입생들의 학비조달방법은 (표-9)와 같다.

(표-9) 학비조달 방법

(숫자 %)

연도 항목	'83	'84	'85	'86	'87	'88	'89	'90	'91
부 모	75.0	86.5	87.4	90.1	90.2	94.0	87.1	90.9	90.1
형 제	4.8	4.6	3.9	3.8	3.4	2.3	2.3	1.5	2.0
본 인	7.2	3.4	3.0	3.5	1.8	2.2	2.1	2.5	2.3
기 타	13.0	5.4	1.9	0.9	2.3	0.7	8.0	5.1	5.3

※ '82학년도에는 「학비조달 방법」문항이 없었음.

※ '83학년도 「기타」 비율이 높은 것은 「부모」 「형제」 「본인」 이외의 것을 전부 합했기 때문임.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학비는 매년 부·모에 의한 조달이 급증 현상을 보이는 반면, 형제나 본인에 의한 조달은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타」의 항목에는 장학금, 천지 등 「부모」 「형제」 「본인」을 제외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83학년도에 부모에 의한 학비조달이 75.0%에서 '88학년도에는 94.0%까지 크게 상승한 반면, 본인이 조달의 경우 '83학년도 7.2%에서 '88학년도에는 2.2%로 5%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형제에 의한 조달도 '83학년도 4.8%에서 '88학년도에는 2.3%로, 2.5%나 감소했다.

3. 학과선택

1) 학과선택의 고려요인

신입생들의 학과선택의 고려요인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0) 학과선택의 고려요인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직업적전망	16.6	47.7	40.3	25.8	36.0	38.8	32.5	29.1	27.5	25.3	32.0
적 성	48.5	34.3	32.6	37.5	29.9	29.9	33.5	32.6	32.7	28.2	34.0
입학가능성	8.0	11.2	16.0	13.0	13.9	13.3	13.9	17.3	17.4	23.8	14.8
이상실현	11.9	3.8	3.4	12.3	11.0	7.7	9.7	9.5	9.9	9.2	8.8
기 타	6.0	3.1	6.8	10.4	8.9	0.5	10.4	11.2	12.4	13.4	8.3

(표-10)에 보듯이 신입생들이 학과선택의 고려요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성(매년 평균 34%)이며, 다음이 직업적 전망으로 꼽고 있다. 이와 반면 입학 가능성 때문에 선택한 학생(평균 14.8%)도 상당수 있다. 이는 선지원 후시험에 따른 입시 부담으로 입학이 가능한 학과에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들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다"와 "잘 모르겠다"라는 4단계로 분류한 결과는 (표-11)에 나왔다.

(표-11)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만족하다	70.0	67.8	34.9	38.9	40.2	38.5	45.2	39.3	40.7	41.3	45.7
보통이다	20.2	26.7	36.7	37.6	36.6	39.0	32.8	39.2	38.6	40.7	34.8
불만이다	9.5	5.3	6.8	6.3	4.1	3.7	2.7	4.0	2.7	2.3	4.7
잘모르겠다			17.9	17.0	18.9	17.9	19.4	17.0	17.6	15.7	17.6

(표-11)에서 보여 주듯이 신입생들이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와 "만족하다"를 합친 평균치가 80.5%를 보여 학과선택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이다"와 "잘 모르겠다"도 22.3%(평균치)를 보여, 전항의 입학가능성을 고려한 학과선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항목의 만족도 측정 설문항목은 "대단히 만족하다"와 "대단히 불만이다"와 "잘 모르겠다"라는 6개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연도마다 설문항목에 차이(탈락, 수정, 추가 등)을 보여 앞 문항과 같이 4개 항목으로 정리(정리한 결과 항목에 별 차이가 없었음)해 조사함으로써 신입생들의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4. 대학진학 및 진로

1) 제대지원 동기

신입생들의 본교 지원동기는 (표-12)와 같다.

(표-12) 제대지원 동기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유일한 국립 대학	17.8	7.2	11.5	8.4	14.2	13.1	13.9	14.8	13.8	12.4	12.7
특수분야 학 문연구			1.1	3.0	6.6		5.8	4.8	4.7	4.3	4.3
입 학 가 능 성	21.4	43.3	30.6	26.0	21.2	21.6	24.5	28.3	29.1	34.6	28.0
제주에서 직업 을 갖기 위해		7.2	9.7	9.0	13.1	13.1	11.7	11.9	11.8	12.4	11.1
경제적 사정	34.5	36.4	31.4	36.8	29.9	30.9	28.3	20.7	14.6	12.7	26.7

(표-12)에서 보듯이 신입생들의 본교 지원동기는 입학가능성(평균치 28.0%)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다음이 경제적 사정(평균 27.6%), 유일한 국립대학(평균 12.7%) 순이다. 그러나 특수분야의 학문연구나, 제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본교를 지원한 학생도 각각 4.3%(평균), 11.1%(평균)로 나타났다.

2) 대학진학의 근본목적

신입생들의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은 가치관에서도 다를 수 있으나 이항에서 다루었다. 이유는 본교지원동기와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이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의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은 (표-13)과 같다.

(표-13)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

(숫자 %)

연도 항목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보다 나은 직업 을 갖기 위해	6.1	23.8	25.1	23.0		21.6			24.1	22.5	30.8
인격수양	54.6	4.9	6.0	7.9		3.1			12.1	21.0	15.6
교양을 쌓기 위해		27.9	28.9	27.0		45.3			6.9	3.5	23.2
학문탐구	32.6	41.8	36.8	37.0		26.1			25.7	17.9	31.1
기 타	2.8	1.6	3.0	2.6		1.7			27.8	31.3	10.0

※ '86, '88, '89학년도 설문문항에는 빠졌음.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탐구(평균 31.1%),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평균 30.8%), 교양을 쌓기 위해(23.2%) 순을 보였다. 또한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중 학문탐구와 교양을 쌓기 위한 문항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격수양 항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제대에 입학한 긍지심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대한 긍지를 묻은 결과는 (표-14)에 제시되어 있다.

(표-14) 제주대학에 입학한 긍지심

(숫자 %)

연도 항목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자랑스럽다	41.5	53.0	60.0	51.5	37.8	33.0	39.5	27.9	43.0
그저 그렇다	49.3	37.0	34.1	40.7	59.5	63.3	58.3	70.9	51.6
부끄럽다	7.7	8.5	1.6	5.4	2.7	3.4	1.8	1.2	4.0

※ '82, '83학년도에는 문항이 없었음.

본교에 입학한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응답자(자랑스럽다+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계에서 보듯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끄럽다”도 4.0%(평균)를 보이고 있다.

자랑스럽다는 긍지심을 갖인 학생은 표에서 보듯이 '87학년도를 기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저 그렇다는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4) 부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

이 항목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부업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 선정됐는데 내용은 (표-15)와 같다.

(표-15) 부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

(숫자 %)

연도 항목	'82	'85	'86	'87	'88	'89	'90	'91
폭넓은 사회 활동	47.4	30.2	33.5	35.0	38.6	44.3	41.4	44.4
용돈 마련	20.8	18.9	19.8	22.9	36.3	34.8	38.3	44.4
학비 마련	15.9	26.1	24.2	21.3	19.2	15.2	13.9	11.7
가족의 생계 유지	15.9				0.5	0.1	0.2	0.3
기 타		21.0	21.1	15.7	5.5	4.2	6.2	4.7

※ '83, '84학년도에는 문항이 없었음.

※ '85, '86, '87학년도의 문항중 「가족의 생계유지」항목은 빠져 있음.

신입생들이 부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폭넓은 사회활동을 들고 있으며, 용돈마련, 학비마련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폭넓은 사회활동과 용돈마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비마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비마련이 감소 추세는 (표-9)에서 보여주듯이 부모에 의존도가 큼을 볼 때 이 항의 감소 추세는 당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용돈마련을 위해 부업을 원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용돈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폭넓은 사회활동도 경험해 볼려는 것은 신입생들의 생활태도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 직업선택의 기준

신입생들의 4년후의 대학졸업후 직업선택의 기준을 묻은 결과 반응은 (표-16)과 같다.

(표-16) 직업선택의 기준

(숫자 %)

항목	연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경제적 소득		7.6	10.0	12.9	13.2	10.6	8.1	9.7	8.3	8.6
사회적 지위		2.4	4.4	4.1	2.6	2.2	1.9	2.6	1.9	2.0	2.7
사회에 봉사		19.6	9.7	10.1	9.3	7.7	5.7	4.2	3.8	4.6	8.3
장래 전망			14.3	13.4	16.4	17.6	11.7	11.1	11.6	11.4	13.4
직업의 전문성			8.2	18.4	10.4	7.9	6.0	9.9	9.8	11.5	9.0
직업의 안정성			14.2	13.2	15.5	20.8	22.2	20.2	17.9	13.8	17.2
자신의 적성과 소질		63.9	36.5	32.6	30.1	27.2	41.9	40.5	44.7	45.8	40.3
기 타		5.7	2.7	2.8	2.5	1.5	1.6	1.7	1.9	2.3	2.8

※ '82학년도에는 문항이 없었음.

※ '83학년도에는 설정항목이 「보수조건」, 「전공분야」, 「가업계승」, 「시간적 여유」, 「사회명성」, 「사회봉사」 등의 항목으로 돼 있어 「보수조건」은 「경제적 소득」에, 「전공분야」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등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후의 직업선택의 기준은 평균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40.3%), 직업의 안정성(17.2%), 장래전망(13.4%)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직업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린 전공분야에서, 직업의 안정적이고, 장래전망이 밝고, 경제소득이 좋은 직업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학생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6) 대학졸업후의 계획

신입생들이 대학졸업후의 계획은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7) 대학졸업후의 계획

(숫자 %)

항목	연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취 직		37.0	46.8	50.8	50.8	59.4	57.4	63.1	59.0	54.4	54.9
대학원진학		36.0	32.6	33.5	31.7	28.2	27.4	24.2	27.5	30.3	28.2	30.0
해외유학		4.8	3.7	5.8	6.1	3.8	5.0	6.1	5.0	4.2	5.3	5.0
기 타		22.1	16.1	9.5	8.9	6.8	6.4	5.5	7.3	10.8	11.4	10.4

※ 기타에는 결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졸업후의 계획으로서는 취직(5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대학원 진학(30.0%) 순이다.

또한 해외유학을 하겠다는 학생도 5.0를 보였다.

이 설문항목은 연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즉 결혼, 군입대 계획미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17)에 나타난 설문 항목만을 선택 분석하였다.

5. 가치관

1)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

신입생들이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에 대한 반응은 (표-18)과 같다.

(표-18)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

(숫자 %)

연도 항목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차이가심함	12.5	13.3	16.1	14.0	14.1	13.0	11.8	12.7	13.4
차이가다소	56.3	56.5	56.0	61.0	65.0	65.7	67.0	67.4	61.8
그저그렇다	24.0	24.7	20.1	20.4	15.1	14.8	14.4	14.3	18.4
차이가없다	6.5	5.3	6.0	4.2	4.0	4.0	2.5	2.7	2.3
모르겠다					1.8	2.1	2.4	2.9	2.3

※ '82, '83학년도에는 설문문항이 없었음.

※ '84~'87학년도까지 「모르겠다」는 문항이 빠져 있음.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차이가 다소 있다가 61.8%(평균계) 보이고 있고 차이가 심하다 13.4%(평균계)로 나타나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면 그저 그렇다,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는 25.1%(평균계)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다소 있다는 항목을 보면 '84, '85학년도에 비해 '90, '91학년도에는 차이가 있다가 11%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저 그렇다와 차이가 없다는 매년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날이 갈수록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재학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신입생들이 대학 재학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반응은 (표-19)와 같다.

(표-19) 재학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숫자 %)

항목	연도										평균 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학 비 문 제	11.4	20.7	11.4		26.2	25.3	25.1	19.2	14.1	10.7	18.2
건 강 문 제	5.7	6.6	5.8	5.5	3.6	2.0	1.4	2.8	2.4	3.3	3.9
병 역 문 제	8.0		8.1	9.6	5.2	4.4	4.3	5.9	7.2	7.3	6.5
학업성취문제	17.0	28.9	17.0	20.9	22.2	22.9	25.1	22.9	21.9	20.0	21.8
대학사회적응문제	13.7	16.9	13.7	12.7	17.5	15.7	16.6	20.2	25.5	27.4	17.9
장 래 진 로	26.8	16.1	26.8	27.0	21.3	23.2	21.0	21.0	21.2	22.6	22.7
기 타	13.0	0.2	7.8	6.8	3.9	7.9	0.3	7.7	7.6	8.7	6.9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 진로와 학업성취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학비문제와 사회적응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 지적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매년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학생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로 나타났다.

그외에 건강, 병역문제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표-20)과 같다.

(표-20)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숫자 %)

항목	연도							
	'82	'83	'84	'85	'88	'89	'90	'91
충 실 한 강 의	32.8	38.9	40.0	25.8	23.8	21.3	20.4	22.6
인 간 적 지 도	65.7	54.3	46.6	60.1	71.6	74.7	74.7	71.4
지 역 사 회 봉 사	0.6	5.2	3.8		2.3	2.2	2.2	2.3
기 타	0.8	1.5	1.9	6.5	2.4	1.6	2.6	3.7

※ '86, '87학년도에는 설문문항이 없었음.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온 후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 지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바라는 인간적 지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강의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신입생들이 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1)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숫자 %)

연도 항목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경 제 문 제	28.4			4.9	4.1	6.6	3.6	9.5
빈 부 의 차		27.0	30.2	22.0	32.0	30.9	19.6	26.9
정치에대한불신	30.1			28.2	23.4	20.5	16.3	23.7
사치및부정부패	18.2	14.6	13.3	17.3	15.8	19.3	28.8	18.1
사 회 질 서	21.5	16.4	16.6	7.8	7.3	6.6	8.9	12.1
청 소 년 비 행		10.2	8.1	6.4	4.0	3.2	2.5	5.7
상 호 불 신				11.7	10.8	10.3	17.6	12.6
기 타		1.2	1.8	1.1	1.7	2.8	2.6	1.8

※ '82~'84학년도와 빈칸의 연도에는 설문항목이 없었음.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빈부의 격차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다. 또한 사치 및 부정 부패와 사회질서의 문란 등을 들고 있으며 상호불신, 경제문제, 청소년 비행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90, '91학년도에 들어서는 사치 및 부정 부패에 응답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졸업 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표-22)와 같다.

(표-22)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숫자 %)

항목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평균 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25.5	11.1	18.7	18.5	17.4	16.2	16.1	15.0	17.3
자유로운 시간과 취 미를 즐기는 시간	30.4	43.9	79.0	40.7	46.7	49.7	52.0	54.2	49.9
사회지도적 위치에서 의 생활	13.5	11.2	8.8	8.4	7.2	8.4	7.0	6.6	8.8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14.1	21.0	17.9		11.4	11.5	10.7	10.2	13.8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15.0	9.1	10.2	11.0	10.6	9.6	7.7	7.2	10.0
기 타			5.0	3.8	6.7	3.5	6.1	6.8	5.3

※ '82, '83학년도에는 문항이 없었음.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졸업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생활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로 나타났다. 다음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사회지도적 위치에서 생활 등으로 순위를 보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과 사회지도적 위치에서 생활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앞 서론에서도 밝혀듯이 본 연구소에서는 본교가 지난 '82학년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신입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신입생들에 대한 제반 특성을 분석 "학생생활 연구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학습자들의 기본 특성을 파악, 효율적인 대학 교육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다. 신입생들의 제반 특성이 중요시 되어 왔던 것은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이 재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82학년도부터 '91학년까지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 즉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 접수와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정원제도 도입('81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 선시험제도 실시 선지원 후 시험제 실시 등 신입생들에게 심적인 부담이 컸던 시기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격심한 때였다. 빈부의 격차 사치풍조 만연, 사회부조리,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은 신입생들로 하여금 갈등과 혼란을 자초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신입생들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 내일의 보다 나은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앞에서 기술된 신입생들의 가정환경과 가치관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 신입생의 성 구분에 있어 여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 '90학년도에는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4%, '91학년도에는 남학생이 51%, 여학생이 49%의 비율을 차지, 남·여 구성비는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문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신입생의 연령분포는 대학입학 적령기인 18세이하 신입생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여부도 앞의 대학진학 연령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재수를 않은 학생이 81.8%(연도별 평균), 1년이상 재수 17.8%(연도별 평균)를 보였다.

둘째, 가정환경에 있어서 가족의 거주지에 대한 물음에 매년 평균 96.9%의 학생이 제주도에 있으며, 3~4%의 학생만이 타도에 가족의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은 제주의 지역여건상 농업이 많으나, 농업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과 중졸이 많으나 매년 고학력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학력 부모가 줄어들고 있다.

가정의 월 수입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수입의 경우 40만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40만원 이하는 감소, 40만원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중이하에 답한 학생이 많음을 볼 때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학비조달방법은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85년 이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형제나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과선택의 경우 : 학과선택의 고려요인은 적성이 34%(평균계), 직업전망 32%(평균계) 등을 보여 적성과 직업전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입학가능성도 고려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다와 보통이다가 80.5%(평균계)를 보여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불만이다와 잘 모르겠다도 23.3%를 보여 앞항의 입학가능성을 고려한 학과선택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내제, 대학진학 및 진로 :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는 입학가능성 28.0%(평균계), 경제적 사정 26.7%(평균계)을 보인 반면, 제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특수분야 학문연구를 위해 지원한 학생도 각각 11.1%, 4.3%(평균계)를 보여줬다.

대학진학의 근본 목적으로는 학문탐구,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교양을 쌓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긍지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업을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폭넓은 사회활동과 용돈마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졸업후의 직업의 선택기준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고, 직업이 안전성, 장래전망 등을 우선 고려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학졸업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취직할 학생이 과반수를 넘었고 대학원진학도 상당수 학생이 원하고 있다.

다섯째, 가치관 : 부모와 자신의 사물을 보는 견해는 61.8%(평균계)가 차이가 다소 있다고, 13.4%(평균계)는 차이가 심하다고 답하고 있어 이들 두 문항을 합치면 상당수의 학생이 부모와 사물을 보는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차이가 없다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해 세대차이가 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재학기간동안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진로와, 학업성취문제, 학비문제, 대학사회 적응문제 등을 꼽고 있어 재학생이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학기간동안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지도를 바라는 학생이 71.5%(평균계)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충실한 강의는 22.6%(평균계)이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빈부의 격차(26.9%, 평균계) 정치에 대한 불신, 사치 및 부정 부패 등의 순을 보여 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49.9%(평균계)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학생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이것도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상으로 지난 '82학년도부터 '91학년도까지 10년간의 신입생들의 생활환경과 가치관 등에 대한 변화의 추세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매년 부분적으로 수정, 탈락되어 매년 분석된 신입생들의

제한 특성이 모두 종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나 그런데로 10년간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는 “대학생활 연구”에 실린 매년도의 신입생 실태조사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러한 조사 연구가 더욱 충실히 활성화되고 추후연구를 통해, 그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